

화순군, 전국 최초 ‘건물 임차형’ 쉼터 호응

기존 건물 활용...시간·비용 등 부담 절감 효과
대중교통 스마트 승강장...폭염 냉방·한파 난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이 기존 건물을 임차해 조성한 스마트 승강장 통합쉼터가 폭염 속 버스 이용객들의 휴식공간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24일 화순군에 따르면 화순읍 교리에 스마트 승강장 통합쉼터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이 쉼터는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이 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냉·난방 시설

등을 갖춘 사계절 공간이다. 최근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버스를 기다리는 주민들이 잠시 쉬어가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화순군은 별도의 건물을 신축하지 않고 기존 건물을 임차하는 방식으로 쉼터를 마련했다. 전국 최초로 건물 임차 방식을 적용해 시설 조성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기존 공간을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했다는 게 군의 설

명이다.

무더운 날씨에 버스를 기다리던 어르신 등 이용객들은 냉방이 되는 쉼터 안에서 잠시 머물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한 이용객은 “날씨가 너무 더워 밖에서 버스를 기다리기 힘들었는데 시원하게 설 곳이 있어 편하다”며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한결 수월해졌다”고 만족감을 내비쳤다.

또 다른 이용객은 “잠시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겨 좋다”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인 것 같다”고 했다.

쉼터는 여름철뿐 아니라 겨울철에는 난

방을 가동해 한파를 피할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계절과 날씨에 관계없이 버스 이용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쉼터 이용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면서 시설을 관리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구현전 화순군 주민안전과장은 “무더운 여름에는 시원하게, 추운 겨울에는 따뜻하게 주민들이 편히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편의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화순공공도서관 입구에 마련된 스마트승강장 통합쉼터 전경.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청



영산강 시원의 청정지역 담양에서 생산되는 ‘대숲맑은 조기햇쌀’이 최근 봉산면 삼지리에서 올해 첫 수확에 들어갔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청

담양 ‘대숲맑은 조기햇쌀’ 올해 첫 수확

63농가 43ha 규모 재배...추석 밥상 겨냥

영산강 시원의 청정지역 담양에서 생산되는 ‘대숲맑은 조기햇쌀’이 최근 봉산면 삼지리에서 올해 첫 수확에 들어갔다.

이번에 수확하는 벼는 농촌진흥청이 육종한 조생종 ‘해담쌀’로, 밥맛이 좋고 단 백질 함량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

올해 대숲맑은 조기햇쌀단지에는 63농가가 참여해 43ha 규모로 재배하고 있다. 수확한 벼는 담양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 전량 산물벼로 수매한 뒤 가공을 거쳐 10kg 단위로 포장해 전국 농협하나로마트 등을 통해 판매할 예정이다.

군은 조기햇쌀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금성농협 공동육묘장을 활용해 조기 육묘를 실시하고, 저온으로 인한 냉해 피해 예방에도 힘써왔다.

또 고품질 햅쌀 생산과 농가의 생산부담을 덜기 위해 육묘 구입비 2200만원을 지원했다.

박종원 담양군수는 “유례없는 폭염과 가뭄 속에서도 값진 결실을 거둔 농업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올 추석에도 대숲맑은 조기햇쌀이 소비자들의 밥상에 오를 수 있도록 판로 확대와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담양=이시수 기자 iss270@gwangnam.co.kr

고흥, ‘장수 도시’ 입증...100세 이상 노인 비율 전국 1위

인구 10만명당 91.8명...청춘바우처 등 맞춤형 복지정책 강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이 전국 1위 장수 고장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24일 국가데이터처 발표에 따르면 고흥군이 지난해에 이어 전국 226개 시군구 가운데 인구 10만명당 100세 이상 노인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2025년 기준 고흥군의 인구 10만명당 100세 이상 노인은 91.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군은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20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5460명의 어르신에게 대기자 없는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80세 이상 어르신에게 목욕탕·이미용 업소 등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연간 6만원 상당의 ‘청춘바우처’를 지급하고 있다.

특히 올해 3월부터 통합돌봄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해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

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고흥군 맞춤형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하고 있다.

군은 전국 최초로 노인전담 주치의제도를 시행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무료 검진을 제공하고, 부모님 안부 확인 서비스, 공공세탁 서비스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가장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고흥을 만들고 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군은 어르신 인구 비율이 48%에 이르는 지역으로서, 고흥을 전국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노인복지정책의 근간이다”며 “고흥의 청정한 자연환경과 풍요로운 먹거리를 바탕으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앞으로도 청정한 자연환경과 어르신 복지정책을 기반으로 군을 ‘고령 친화도시’로 조성해 태어난 때부터 100세까지 따뜻한 돌봄과 포용으로 모든 국민이 행복한 고흥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gwangnam.co.kr

신안, 조피불락 82만 마리 방류
양식어류 폐사 피해 예방 기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이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어류 폐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압해읍에서 조피불락 8만 마리를 방류한 것을 시작으로, 8월 중 총 82만 마리를 긴급 방류한다.

이번 긴급 방류는 지난달 27일 흑산면 등 해역에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양식장 사육밀도를 낮춰 고수온으로 인한 폐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방류에는 압해읍, 흑산면, 안좌면 3개 지역의 총 11개 양식어가가 참여한다.

올해 긴급 방류 물량은 총 82만 마리로 지난해보다 약 4배 증가한 규모다. 지속되는 고수온으로 양식어류의 폐사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행정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방류 규모를 확대했다.

방류되는 조피불락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전염병 검사를 마친 건강한 개체들이다. 군은 긴급 방류를 통해 양식어가의 고수온 피해를 줄이는 동시에 연안 수산자원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안=이훈기 기자 leek2123@

장성, 도로 교통 안전 확보 ‘총력’
6곳 교통환경 개선...회전교차로 등 신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

지역 내 6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교통환경 개선사업은 지난 1월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지역교통 환경개선 자문을 받은 내용을 토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3월부터 착공에 들어간 상태다. 사업 완료 시기는 올해 말로 예상된다.

이중 군은 원활한 교통 흐름을 가져가면서 사고도 예방할 수 있도록 △동화면 구림리 △장성을 장안삼거리 두 곳에 회전교차로를 새로 만들고 있다. 동화면 회전교차로는 준공했고, 장안삼거리 공사는 추진 단계다.

기존의 △장성읍 오거리 △신흥면 월평리 회전교차로에서는 안전시설물을 정비하고 화물차 턱을 교체하는 등 시설 개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서삼면 용흥사거리 교차로는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재포장 작업과 안전시설물 정비를 마무리했다.

삼사-삼계 구간 인도에는 적색 아스콘 포장을 실시해 이용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있다.

김한중 군수는 “공사를 통해 교통 사고 지대와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공사 기간 중 다소 통행에 불편이 따르겠지만,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이항범 기자 lhb6699@gwangnam.co.kr

영광,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실효성 강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은 2027~2030년 4년간의 복지 정책 방향을 담은 ‘제6기 영광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효성을 강화를 위해 최근 부서 간 실무 TFT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영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사업 실무자 등이 참석해 계획 수립을 위한 심층 논의를 이어갔다.

앞서 군은 지난 7일 노인·장애인·청년·중장년·아동청소년 등 5개 생애주기 분야를 대상으로 FGI(전문가그룹인터뷰)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TFT 회의는 당시 수립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계획의 뼈대가 될 전략체계(안)을 부서별로 최종 검토하고, 신규 사업 발굴 및 기존 사업 정비 위한

구체적인 전략 목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27~2030년)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4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지역 주민의 복지 수요와 자원을 반영해 사회보장사업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핵심 정책 과제로, 지역 맞춤형 복지 서비스 체계 구축의 근거가 된다.

영광=정규팔 기자 ykjp98@gwangnam.co.kr

함평, 춘란 산업화 기반 확대 ‘본격화’

난문화센터서 재배·유통 활성화 2차 교육 운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이 한국춘란 재배 기술을 군민들에게 보급하고 난 산업의 저변을 넓히는 등 지역 특화산업 육성에 나선다.

24일 함평군에 따르면 오는 10월 10일부터 22일까지 함평난문화센터에서 ‘2026년 한국 춘란 재배 및 유통 활성화 교육’ 2차 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취미교육을 넘어 한국 춘란의 재배와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에서 생산·유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그동안 ‘대한민국 난 명품 대제전’을 개최하는 등 난 관련 문화와 산업을 꾸준히 육성해왔다. 군은 이러한 경험과 기반을 바탕으로 한국 춘란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을 실제 재배 역량으로 연결하고, 향후 지역 특화산업과 소득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2차 교육은 춘란에 관심 있는 지역민 30명 안팎을 대상으로 매주 1회씩 총 6회 진행된다.

교육에서는 △춘란 기초 상식 △춘란의 생리와 생육환경 △배양 기초 △관수 방법 △비료·화력제 사용법 △엽예뻬·화예뻬 관리 등 재배에 필요한 기본 이론을 다룬다.

특히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재배 과정에서 필요한 실습을 병행한다. 교육생들은 분갈이와 용토 관리, 물주기, 비료와 화력제 사용법 등을 직접 익히며 춘란을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을 배우게 된다.

군은 교육을 통해 춘란 재배에 대한 군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재배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교육을 통해 축적된 재배 기술이 우수 품종 생산과 유통으로 이어질 경우 난 관련 농가와 산업 기반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함평군 관계자는 “지난 6월 진행된 1차 교육에서도 한국 춘란에 대한 군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며 “재배 기술을 체계적으로 보급해 춘란이 단순한 관광문화를 넘어 지역의 특화산업과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최일균 기자 6263739@



한국 춘란 재배 및 유통 활성화 교육 현장.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청